

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

김 재 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I. 요 약

이 글은 학제나 제도의 개혁보다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하여 우리 중등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중등교육이 지니는 역사 사회적 성격을 분석한 다음, 거의 완전 취학 단계에 이른 우리 중등교육의 성격이 이전과는 달리 규정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둘째,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좌표를 설정하였다. 이론적 좌표의 두 축은 학교간-학교내 다양화 축과 평등-자유 축이다. 이 두 축을 교차시키면, 학교간-자유(I)안, 학교간-평등(II)안, 학교내-평등(III)안, 학교내-자유(IV)안이 도출 가능하다. 셋째, 각 다양화 방안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였다. I안의 예시로는 자율학교 안을, II안의 예시로는 모든 학교의 특성화 학교화 안을, III안의 예시로는 미니학교 운영 안을, IV안의 예시로는 수준별 교육과정과 계열화 운영 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제시된 네 개안의 활용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방안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수정 문제를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네 가지 안들이 우리 학교에 실효성있게 적용되어 교실 교육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중등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안들이 현장 실험 연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을 지적하였다.

II. 서 론

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교육개혁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중등교육이, 비교적 그 성격이 분명한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과는 달리, 이들의 중간에 위치하여 그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유래한다. 중등교육의 아래로는 초등교육이 있다. 초등교육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으로서, 국민의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등교육의 위로는 대학교육이 있다. 대학교육은 학생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발하는 경쟁교육으로서, 복지 차원보다는 투자 차원에서 모든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중간에 위치한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이나 고등교육과는 달리 부분적으로 복지적 성격과 투자적 성격을 모두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자국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중등교육의 정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이돈희, 1987; 이종재 외, 1995).

이처럼 중등교육이 지니고 있는 애매한 성격 때문에 국가마다 중등교육의 독특한 체제를 발달시켜 왔다.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중등교육이 복지개념으로 간주된다. 민주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미국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선형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s)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효율성을 무엇보다도 강

조하는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중등교육을 투자 개념으로 간주하며,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복선형 학제를 운영하고 있다(구자익 외, 1997). 이처럼 각 나라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특성에 따라 중등교육은 그 모습을 달리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은 대학입시 제도와 맞물려 수많은 변화를 경험해 왔다(박부권 외, 1992). 최근 들어 우리 중등교육은 해당 연령층의 학교 진학률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중등교육은 보편교육의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우리 중등교육의 성격에 대해 보다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이다. 중등교육을 단선형 종합학교 체제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복선형 학제로 운영할 것인가? 대학 입시에 얽매어 요지부동인 중등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입시제도의 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중등교육의 개선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중등교육의 질 개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해서보다는 대학입시 제도나 교육 체제의 변화, 즉 거시적인 정책 변화를 통하여 중등교육을 개선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 외적인 변화를 통하여 교육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부분적인 성공만 거둘 수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학교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의 변화를 통하여 실현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변화를 통한 교수-학습 관례의 변화, 즉 교실 수업의 변화가 없이는 어떠한 교육 개혁도 의도된 결실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중등학교의 교실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학교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III. 중등교육의 역사 사회적 성격 분석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중등교육은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의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은 중등교육 자체에 내재해 있다기보다는 한 사회에서 중등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유래한다. 중등교육은 중등학교에 취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적을 때는 성격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나 소수의 사람만이 중등학교를 다닐 때는 중등교육 자체가 소수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간주되고, 엘리트 교육의 성격을 띄며, 개인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투자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중등교육의 문제가 다소 복잡하게 되는 것은 해당 연령층의 대다수가 학교에 다니게 되는 시점부터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등학교에 다니게 되면, 중등교육 대상 학생 수가 많아진다는 사실 외에도 학생간의 개인차, 즉 학업 성취 수준, 흥미와 관심, 진로 등에 있어서 개인차가 커진다는 사실 때문에 중등교육의 성격 자체가 심각한 동요를 겪게 된다. 미국에서 1920~30년대 중등학생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종합학교 체제의 도입, 능력별 반 편성 및 계열화의 등장, 1980년대 호주에서 중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짐에 따른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 등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Oakes, 1985; 국립교육평가원, 1995).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중등교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의 형태를 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모든 학생들이 하나의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종합고등학교 체제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중등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1920-30년대 대공황을 전후로 미국의 중등교육은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엘리트 학생과 보통 학생들을 한 지붕 아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되, 능력별 반 편성이나 계열화를 통하여 서로 다른 능력, 관심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종합고등학교가 탄생하였다(Spring, 1990). 이러한 종합고등학교 체제는 모든 학생들을 한 지붕 밑에서, 즉 동일한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김재춘 1997b).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또 다른 체제는 중등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을 능력, 관심, 진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선형 학교 체제이다. 이런 방식의 중등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 당국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국식의 종합고등학교를 도입하고자 시도했다. 그러나 독일에서 종합고등학교는 현재까지 겨우 명맥만 유지해 오고 있다. 그 대신 독일의 중등학교 체제는 김나지움(Gymnasium), 레알슐레(Realschule),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로 삼원화되어 있다. 상위권 약 30%의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인문계 중등학교인 김나지움에 진학하고, 그 다음 중위권 약 40%의 학생들은 기술대학 진학 준비를 위하여 레알슐레에 입학하며, 하위권 약 30%의 학생들은 이후에 진학할 직업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하우프트슐레에 진학한다(정영근, 1997; OECD, 1996).

위의 미국과 독일의 예에서 살펴 본 것처럼,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중등교육의 체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두 체제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주장은 가능하다. 미국과 같은 단선형 학제는 모든 학생들에게 중등학교 졸업 때까지 동일한 종류의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교육의 평등성을 일차적으로 추구한다고 볼 수 있는 데 반하여, 독일과 같은 복선형 학제는 학생들간의 실력 차이, 또는 관심이나 흥미, 진로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일차적으로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김재춘, 1997a).

여기서 우리 중등교육 체제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해방 첫째인 1945년, 우리나라의 중등학교의 숫자는 168개교, 학생 수는 85,000 여명이었다. 이 때는 아직 중등교육의 성격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은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에 도입된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졸업생이 많아지게 되자 중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중학교 무시

험 입학이 시행된 1969년에는 1,463개의 중학교에 약 1,147,000여명이 재학하고 있었고, 861개교의 고등학교에 약 530,000여명이 몸담고 있었다(교육부, 1998).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 도입은 진학을 원하는 초등학교 졸업생이 모두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따라서 1969년에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이 때 초등학교 졸업생 중 원하는 자는 모두 중학교에 진학할 만큼 중학교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중학교의 무시험 입학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이들은 “일류”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격심한 경쟁을 경험해야만 했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하여 한편으로 고등학교간의 서열은 더욱 고착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일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피말리는 경쟁과 과외 교육이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4년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1998년, 우리나라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이고,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4%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해당 연령층의 대부분이 중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중등교육의 성격이 이전과는 달리 규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등교육의 성격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학교의 경우, 1985에 도서벽지지역부터 무상의 무교육을 실시하면서 점차 그 적용 지역을 넓혀오고 있다. 그리고 머지 않아 모든 중학교의 교육이 무상의 무교육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중학교 교육의 성격 자체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중학교는 복지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 공통 교육으로 간주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중학교와 사정이 다르다. 1960년대 이래 특수분야의 전문교육을 하는 실업계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이 운영되어 오고 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수나 학생수가 미미함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크게 일반계와 실업계로 양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계열별 학생 분포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1,303,874명, 실업계 고등학교에 939,433명이 재학중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7b). 고등학교 학생들은 서로

다른 학교에서 서로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 2000년부터 우리 학교에 적용될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10년으로 명시하여, 고학교 2~3학년 과정은 국민 공통 교육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거의 완전 취학 단계에 이른 우리 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에 변화의 대한 요구가 강하다. 대학입시 준비 교육이라는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극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하여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력이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적극적인 차원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은 개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각국은 세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무한경쟁의 개방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중등교육은 새롭게 변화될 필요가 있다. 변화의 방향은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성, 개성, 다양성을 길러 줌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IV.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 개발의 이론적 좌표 설정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 제도나 학제의 변화를 통하여 중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려고 시도해 왔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고 학제가 달라진다고 해도 곧바로 교실 교육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교실교육의 의미있는 변화는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을 다양화시킬 때, 실현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나 학제의 변혁을 꾀하기보다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중등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필자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축을 먼저 설정하고자 했다. 먼저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좌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학교간-학교내 축과, 평등-자유 축을 설정하였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좌표의 첫 번째 축인 학교간-학교내 축을 살펴보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법에는 학교간 교육과정 차별화 방안과 학교내 교육과정 차별화 방안이 있다. 첫째, 학교들간에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등학교는 학교간의 차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서울 도심에 위치하는 학교나 도서·벽지에 위치한 학교나 교육과정의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차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학교간의 차이가 없는, 획일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의미있는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학교내에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있다. 학교간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교내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선택을 가능하게 해 주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면, 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관심, 흥미, 진로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중등학교의 경우, 학교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 내에서도 교육과정은 그야말로 획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에는 학교가 단 하나 밖에 없다’거나, ‘한국의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식으로 배운다’는 말에 아무도 크게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 만큼 한국의 학교, 특히 중등학교는 학교간에든 학교 내에서도 교육과정을 획일적인 방식으로 편성·운영해 왔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좌표를 구성하는 두 번째 축은 평등/자유라는 축이다. 평등과 자유는 자유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내걸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지고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평등과 자유 중 어느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어느 사회나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도 평등과 자유를 항상 함께 추구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책, 특히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구안하게 되면,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좀더 강조되거나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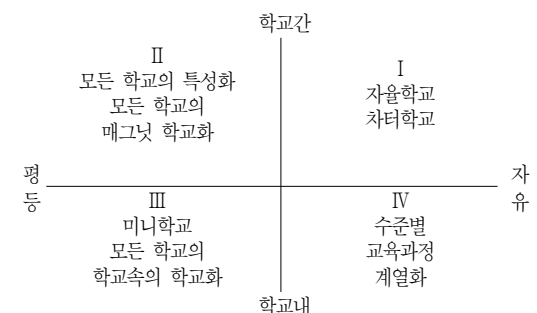
첫째,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줌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안이 있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과 관련해서 평등을 강조한다는 것은 모든 학교 또는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저마다 독특한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적성과 소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하여 모든 학생들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다양화 또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부 학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줌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방안이 있다. 즉, 모든 학생에게 동시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려는, 평등을 강조하는 관점과는 달리,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개설해 놓은 다음, 원하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다. 특색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개설해주고, 학생들이 현행의 교육 프로그램 대신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유를 강조하는 다양화 운영 방안은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선택에 의해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대신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모든 학생에게 새로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접하게 하려는 평등을 강조하는 다양화 운영 방안과 구별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좌표를 구성하는 두 축인 학교간-학교내 축과 평등-자유 축을 서로 교차시키면 네 종류의 서로 다른 다양화 방안이 도출 가능하다. 학교간-자유(I)안, 학교간-평등(II)안, 학교내-평등(III)안, 학교내-자유(IV)안이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은 학교간-자유(I) 분면에 위치한다. 즉 학교간에 차이를 두어 몇몇 특색있는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에 다니고 싶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주는 안이다. I안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 학교에서 최근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자율학교나 미국의 차터학교(charter school)이다. 기존의 학교체제의 교육과정은 현행 방식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 수의 학교에게 자율적으로 특색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관련된 여러 규제들을 일정 기간 면제시켜 주는 방안이다(김재춘 1998).



[그림 1]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방안 개발을 위한 이론적 좌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은 학교간-평등(II) 분면에 위치한다. 모든 학생들이 특색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서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II안의 예는 현재의 모든 고등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시켜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선택하여 다닐 수 있게 하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다. 예컨대, 학교의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방식에는 인문교과 또는 사회교과 특성화 학교와 같이 강조하는 교과 내용 영역에 따른 특성화 학교, 전통학교 또는 진보학교 등과 같이 학교가 강조하는 교육철학 또는 교육방법에 따른 특성화 학교 등을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서 I안과 II안은 학교간의 차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I안은 일부 학교에서만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설한 다음, 희망하는 학생들이 특성화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게 하는 데 비하여, II안은 모든 학교를 특성화하여 모두 평등하게, 즉 학생의 선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특성화된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운영 방안이다(Wells, 1993).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세 번째 방안은 학교내-평등(Ⅲ) 분면에 위치한다. 학교간의 차이를 추구하는 I·Ⅱ안과는 달리, 학교내에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 운영을 시도하되, 모든 학생들에게 현재와 다른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에 접하게 한다는 점에서 평등을 강조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다. Ⅲ안의 대표적인 예로 미니학교 운영을 들 수 있다. 미니학교란 현재 도시 지역에 위치하는 과대 규모 학교를 일정 단위의 규모로 나누어 각 단위 규모별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학교 속의 학교(schools within a school)를 일컫는다. 모든 학생들은 하나의 미니학교에 속하게 되며, 자신이 속한 미니학교에서 현재와 다른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Sizer, 1992).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한 네 번째 방안은 학교내-자유(Ⅳ) 분면에 위치한다. Ⅳ안은 Ⅲ안과 마찬가지로 학교간의 차이를 추구하기보다는 학교 내에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되, 희망하는 학생만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점에서 자유를 강조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Ⅳ안의 대표적인 예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모든 학생들이 일단은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기본 과정)에 참여하되, 자신의 능력, 흥미, 관심, 적성, 진로 등에 따라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다(김재춘, 1997b). Ⅳ안의 또 다른 예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계열화(tracking) 방안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은 대학 준비 교육을 받게 되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진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길(track)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한다는 점에서 학교내-자유안이라고 볼 수 있다.

V.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방안: 구체적 예시를 중심으로¹⁾

1) 여기서 제시된 안들은 필자가 참여했던 ‘서울시 교교 교육 정상화 방안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 및 검토과정을 거쳐 나온 것이다. 연구진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 교사 협의회, 교장 및 교사 면담 등의 과정에서 각 안들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된 안들이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많은 교육 관계자들과 협의·검토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임을 밝혀둔다.

이 절에서는 앞에서 설정된 좌표로부터 도출 가능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 네 가지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안들은 각 분면에서 가능한 다양화 방안 중 오로지 하나의 예시임을 밝혀 둔다.

1. 자율학교 운영: (I 안)

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획일적인 편성·운영 방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무성을 지니는 ‘자율학교’를 승인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학교는 그 성격상 미국의 차터학교(charter school)나 영국의 국가교부금지원학교(grant-maintained school)와 비슷하다(강태중외, 1996; 김재춘, 1998; Nathan, 1996). 국가와 지역 교육청의 모든 규제를 따라야만 하는 일반학교와 달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관련해서 자율성을 대폭 허용하되, 일정 기간 뒤에는 자율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받는 자율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안이다.

최근 교육부는 한시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도 교육감이 추천한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탈규제 또는 자율의 주요 내용은 전국 단위의 학생 선발, 교장/교감 자격 제한 철폐, 교과용 도서 자료 선택 등이며, 학생 등록금 및 선발권 자율화는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1997).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자율학교 안에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가능하게 해 줄, 국가 및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으로부터의 면제 특권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율학교 안은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기 위한 재정, 인사 및 기타 행정 지원과 관련한 자율성의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종류의 자율학교 안을 미국의 차터학교를 모델로 하여 우리나라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수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율학교 운영 안>

- ① 목적 : 학교에는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의 자율성

을 보장해주고, 학생에게는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교육의 질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② 선정 방법 : 시도 교육청별로 매년 자율학교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일정 조건을 갖춘 일정 수(예컨대, 시도별 2개 학교)의 학교에 한하여 자율학교를 승인해 주고, 점차 그 수를 확대해 나간다.

③ 신청시 구비할 사항 : 자율학교 인가를 신청할 때, 자율학교 신청의 목적, 활용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 기대되는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게 한다. 자율학교 신청은 재직 교사와 학부모의 50%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다.

④ 학생 선발 방법 : 자율학교는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되,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교과 성적 50%, 그 밖의 다양한 준거에 의한 평가 결과 50%를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자율학교 입학에 위한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위의 기준에 의해 최종 선발 인원의 150~200%를 1차 선발한 다음, 2차 선발은 추첨에 의한다.

⑤ 자율의 내용 :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운영과 관련된 국가나 시·도 교육청의 모든 규제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교육감의 승인아래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승인된 자율학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모든 규제로부터 면제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새로운 방식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기존의 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2. 모든 학교의 특성화 학교화 : (II안)

앞에서 제시한 I안은 소수의 학교를 자율학교로 규정하고, 이러한 자율학교가 규제로부터 자유로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면, 여기서 제시할 II안은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는 특성화 학교로 전환시키는 안이다. 이러한 특성화 학교화 안은 교육의 공급자인 학교에게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우리 학교 체제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실질적인 의미의 학교 선택권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여기서 제시되는 모든 학교의 특성화 학교화 방안은 학제나 제도의 변경을 통한 특성화가 아니라 일차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학교의 특성화를 의미한다. 현재 획일적인 방식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각 학교가 특정한 교과내용 영역이나 교육 방법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권장하는 안이다. 각 학교가 자신만의 특색을 지닌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게 한 다음,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모든 학교의 특성화 학교화 안>

① 각 학교는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특성화 방식을 결정한다. 단, 동일 학군내에 다양한 특성화 학교가 가능하도록 교육청이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강조하는 교과내용 영역에 따른 특성화 학교

- 인문학 특성화고
- 사회과학 특성화고
- 자연과학 특성화고
- 수리과학 특성화고
- 외국어 특성화고
- 예술 특성화고
- 체육 특성화고
- 기타

◦ 강조하는 교육 방법(철학)에 따른 특성화고

- 교과중심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통 특성화고
- 아동/학생 중심의 진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진보 특성화고
- 컴퓨터 등 최신 기술공학적 매체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첨단 특성화고
- 기타

② 현행 학군내에서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에 따라 학군을 조정하여 특성화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 학군내 고등학교 수가 적을 경우, 두 세 개의 학군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안

- 학군이 지나치게 클 경우, 학군을 2-3개의 '학구'로 나누어 운영하는 안

③ 특성화고 체제에서 학생 선발시 내신 및 교과외 성적에 의해 최종선발 인원의 150-200%를 1차 선발한 다음, 추첨에 의해 2차 선발하도록 한다.

④ 교육과정 운영 안: 학교마다 특성화 교과내용 영역이나 교육 방법을 강조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면, 인문학 특성화고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10개 기본 교과를 모두 제시하되, 선택과목은 주로 인문학 관련 과목을 집중적으로 개설해 준다. 필요할 경우, 관련된 전문 교과목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인문 교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한 방안에 따라 모든 학교를 특성화 학교화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어야 하며, 동시에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고교 평준화 정책이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성화 학교를 현행의 학군 단위로 운영하고, 각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입학생의 최종선발에 추첨제를 활용한다면 현행 평준화 정책의 기본 의도를 훼손시키지 않고도 특성화 학교화 안을 도입할 수 있다.

3. 미니학교 운영 : (Ⅲ안)

현재 우리 나라 대도시의 경우, 과대 규모의 학교가 심각한 교육 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과대 규모의 학교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천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한 지붕 아래에서 교육하면서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적합성과 실효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교사가 500~700명의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에 그치게 되고,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 이외의 학생의 성적, 학교 생활이나 진로 문제, 기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학생과 교사간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교사가 학생을 보다 책임있게 그리고 전인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미니학교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니학교 운영은 과대 규모의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현재의 학교와 시설물들

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교육과정 운영의 단위를 달리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미니학교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과대 규모의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미니학교마다 특색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 줄 수 있다(Sizer, 1984, 1992).

<미니학교 운영 안>

① 미니학교는 아래 그림에서처럼 1, 2, 3학년을 고루 섞어 한 단위로 묶은 미니학교인 A, B, C 체제로 하거나, 각 학년을 한 단위로 묶은 미니학교 1, 2, 3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미니학교는 약 600명의 학생으로 구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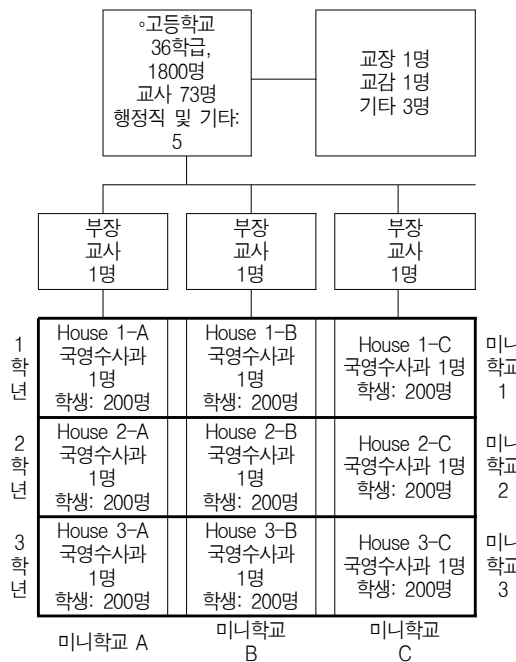
② 수업의 편성 운영은 원칙적으로 부장 교사 또는 교감이 중심이 되는 미니학교 단위로 하고, 미니학교간의 관계나 학교 전체와 관련된 일은 교장, 교감 또는 기타 교사(행정요원 등)가 담당한다.

③ 국영·수사과 이외의 교과목 교사는 미니학교별로 담당을 나누어 정할 수도 있고, 여러 미니학교에 걸쳐 지도하도록 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직원 협의회 또는 교장, 교감, 부장 교사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④ 국영·수사과 교사 3인씩을 각 미니학교마다 배정한다. 따라서 학생 200명으로 구성된 각 House (1-A, 2-A 등)에 국영·수사과 1인씩을 배치하여, 200명의 학생들을 공동으로 책임지도 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수업의 편성 운영의 기본 단위를 미니학교에서 House(1-A, 2-A, 3-A 또는 1-A, 1-B, 1-C 등)로 축소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국영·수사과 교과 교사 수는 각각 1명씩이 될 것이므로 이들이 협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⑥ 사회와 과학 담당 교사의 경우, 세부 담당과목(자격증 표시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미니학교에 속한 교사와 순환 지도하도록 한다. 다만, 앞으로 사회과와 과학과 교사는 통합교과(공통사회, 공동과학) 또는 해당 교과내 복수전공 지도가 가능한 교사를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배치한다.



[그림 2] 미니학교 운영 모형

이러한 방식으로 미니학교를 운영할 경우, 대도시의 과대 규모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이 속해 있는 미니학교에 쉽게 애착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니학교별로 다양한 방식의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간에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마련된다.

4.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주는 방안 중의 하나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특별히 학생들을 학업성취 수준별로 반 편성한 다음,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학급간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대부분의 우리 중등학교에서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00년 이후에는 보다 확대되어 실시될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기인 현재 우리 학교에서 실시 중인 수준별 수업은 학년별 공통의 일제식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내용으로 하되,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따라 깊이를 달리하여 가르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조난심 외, 1998). 제7차 교육과정기의 수준별 교육과정도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 동안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속도나 깊이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공통 과정을 이수하되, 학생의 성취 수준을 고려한 선택에 따라 교육과정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양화된다(김재춘, 1997b). 이를 좀더 구체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재이수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이수 속도를 달리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했지만, 모든 학생에게 속도만을 달리하고 내용은 동일 교육과정을 제공해 준다. 둘째,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비록 심화보충 과정을 운영하기는 하지만 동일 학년의 모든 학생이 동일한 교과서로 공부해야 한다. 따라서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공부하되,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능력, 관심, 흥미 등에 기초한 선택에 따라 다른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현재 우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급간 수준별 이동수업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신에 미국의 학교들이 오랫동안 활용해 온 계열화(tracking) 방식의 교육과정 차별화(curriculum differentiation) 방안을 활용할 수 있다(Oakes, Gamoran & Page, 1992).

계열화 방안은 몇 개의 계열을 만들어 놓고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계열을 따라가면서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안이다. 그러나 계열간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막는 안은 불평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계열간 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Wells & Serna, 1996).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 수학을 이수하도록 한 다음, 중 2-3학년에서 보충 수학, 기본 수학, 심화 수학 중에서 자신에게 적절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한다. 중학교 과정에서 보충 수학을 이수한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실용 수학이나 사회 수학 I을 선택해서 이수할 수 있고, 기본 수학을 이수한 학생들은 사회 수학 I이나 사회 수학 II를, 심화수학을 이수한 학생들은 사회 수학 II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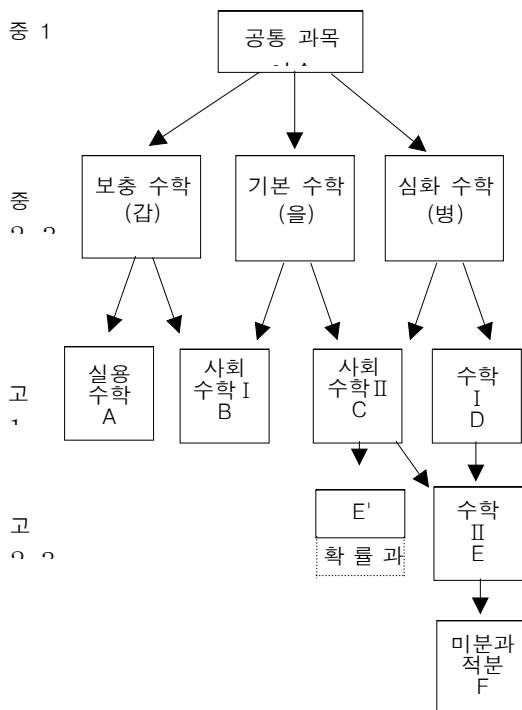
나 수학 I 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 수준, 관심이나 흥미, 진로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바로 계열화이다. 이러한 계열화 방식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계열화 방식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안>

① 학생들에게 동일 교과 영역에서 여러 과목을 개설 해주고, 자신의 특성에 적절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한다. 예를 들면, 수학의 경우 실용 수학, 사회 수학, 기본 수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이 중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② 선수 과목에 따라 다음에 학습할 과목의 선택 범위가 달라지도록 한다. 실용 수학을 선택한 학생은 다음에 곧바로 어려운 수학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 점차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 관심과 흥미, 진로 등에 적합한 서로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Board of studies NSW, 1996).

이러한 계열화 방안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교육과정의 계열화 운영 모형

- * 갑을병, ABCD는 수학교과와 경우 주로 난이도에 따른 교과 구분으로 볼 수 있다.
- * E'EF는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수학을 선택하여 듣기를 원하는 학생들만 이수하는 선택 과목이다. 고1까지는 모든 학생이 수학교과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되, 어떤 과목을 이수하느냐는 학생의 선택에 의한다.

이처럼 계열화 방식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자체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계열화 방안은 현행 또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당장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6차 또는 제7차 교육과정기에 계열화 방식의 운영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과정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VII. 다양한 교육과정 활용 방안 및 운영 여건

앞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우리 학교 교육은 획일화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이고,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다양화 방안의 활용과 관련하여 먼저 논의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 방안의 중복 활용 문제와 방안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수정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과정의 다양화 안들의 중복 활용 문제

이 글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네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안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두 세 가지 안이 동시에 활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 방안을 학교에서 또는 관할 교육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된 네 가지 안과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오해 중의 하나는 네 개의 안 중에서 오로지 하나만을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개 이상의 안을 선택하여 각각을 별도로 그러면서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두 세 개의 안을 적절히 조합하여 새로운 안을 만들어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교육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이 네 가지 안 중 어느 한가지만을 선정하여 모든 학교가 이를 시행하도록 요구하기보다는 여러 안들을 복수로 제공하되, 학교가 적절한 안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교육부 또는 시도 교육청은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운영안들이 채택·활용되어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단위 학교는 여기서 제시된 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특색있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는 관내 학교들이 여러 안들을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2. 교육과정 운영 지침의 수정 문제

이 글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다양화 정책 대안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또는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을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과 제7차 교육과정의 지침 수정없는 것은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제시된 방식대로 운영하여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전면 또는 부분 개정하거나 교육과정의 운영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된 I안의 경우, 자율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의 예외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편제나 운영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II안과 III안을 우리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침 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 지침을 상당한 정도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위 학교가 새로운 교과목을 비교적 쉽게 개설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IV안의 경우,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학급간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편제나 운영 지침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계열화 방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현행 또는 제7차 교육과정 자체를 대폭 수정해야만 한다.

VIII. 결 론

이 글에서 연구자는 우리 중등교육의 특수성을 간략히 분석해 본 다음, 중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이론적 좌표를 설정하고, 다양화 방안 네 가지를 구안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화 방안의 활용 문제와 이를 위한 교육과정 편제나 지침의 수정 문제를 검토해 보았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먼저 현 상황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하면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및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와 지속적인 협의·검토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지침이 발견되면 수정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과정의 부분 또는 전면 개정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의 다양화 없이는 교실 수업을 개선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며, 교실 수업의 변화 없이는 우리 중등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1세기의 사회를 전망해 볼 때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은 이제 우리의 선택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떠 맡아야 할 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끝맺기 전에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 대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첨가하고자 한다. 첫째,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모두에게 의미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중등 교육은 그 수혜 대상이 소수의 집단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정반대로 중등교육의 수혜 대상이 대다수

의 젊은이들에게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적성, 학업 능력, 관심과 흥미, 진로 등에 있어서 학생간의 차이가 매우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일제식 교육과정의 획일적인 운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의미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은 더 이상 우리 교육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의 다양화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무엇보다도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다양한 편성·운영이 가능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최소한의 내용이나 지침이 제시되고, 지역 교육청과 단위 학교가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결정 권한의 대폭적인 이양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처럼 국가 교육과정에서 모든 학년, 모든 교과와 시간표를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는 공통 이수 교과 수와 최소 이수 단위 또는 시간 수만을 제시하고 나머지 사항은 지역과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아야 한다.

셋째,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교육과정 우수 학교를 선발하여 그 사례를 널리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는 다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참고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의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의 개선 그 자체가 교육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과정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과정을 특색있게 운영하는 학교나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사회에서 교육의 수요자 중심적 성격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의 선택요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글에서 제시된 교육과정 운영의 네 가지 다양화 방안은 학교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보다는 현장 실험 연구 과정을 거쳐서 먼저 그 가치가 검증될 필요가 있다. 현장 검증과정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곧바로 모든 학교에 적용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혼란이나 시행착오를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참 고 문 헌

강태중 외(1996). 「'새 학교' 구상: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강태중 외(1996). 「'새 학교' 구상: 좋은 학교의 조건과 그 구현 방안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광병선 외(1996).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혁위원회(1995).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교육부 (1997). 자율학교 시범 운영 관련 자료.
 교육부 (1998). 「교육 50년사」.
 구자익, 김재춘, 박태준, 윤종혁, 정영근, 황규호(1997).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교육」. 서울: 문음사.
 국립교육평가원 (1995). 「세계화를 위한 교육의 국제 비교」.
 김수천(1997). 해방후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2000'. 「교육과정연구」 15(2).
 김재춘(1997a). 영속적인 세계체제를 추구하는 미국의

교육.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교육」. 서울: 문음사.
 김재춘(1997b). 다시 생각해 본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편성, 운영 논의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15(2).
 김재춘(1997c). 미국 교육 개혁 논의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교육이론」 10(1).
 김재춘(1998). 미국의 교육 개혁 논의에 있어서 학교 선택권 담론 - 차터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16 (2).
 배평모(1995). 「울타리없는 학교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종로서적.
 이돈희(1987).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교육과정의 재검토 「교육과정 이론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이종재, 장석우, 허경철, 김성호, 이차영(1995). 「대학 입학전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보고서.
 전성연 외(1995).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방안 연구」.

- 교육과정개선연구회.
- 정영근(1997).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을 지향하는 독일의 교육. 「동서양 주요 국가들의 교육」. 서울: 문음사.
- 조난심, 김재춘, 허경철, 박순경, 홍후조(1997).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조난심, 홍후조, 박순경, 김재춘, 황혜정, 소경희, 김철연(1998). 「제6차 교육 과정에서의 중등학교 수준별 수업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1997a). 「열린교육 입문」. 서울 : 교육과학사.
- 한국교육개발원(1997b). 「한국의 교육지표」.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 함수곤(1997). 제6차와 제7차 교육과정의 관계. 「교육진흥」.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허경철 외(1996). 「교육과정 2000 연구 개발 수준별 교육과정안」. 한국교육개발원.
- Board of studies NSW. (1996). *Mathematics Intermediate Course*.
- Nathan, J.(1996). *Charter School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Oakes, J. (1985). *Keeping Track: How Schools Structure Inequali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Oakes, J., Gamoran, A., & Page, R. N. (1992). Curriculum Differentiation: Opportunities, Outcomes, and Meanings. P. W Jackson(ed.),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NY: Macmillan.
- OECD. (1996). *Education at A Glance*.
- Sizer, T. R. (1984). *Horace's Compromise: The Dilemma of the American High School*. NY: Houghton Mifflin Co.
- Sizer, T. R. (1992). *Horace's School: Redesigning the American High School*. Boston: Houghton Mifflin Co.
- Spring, J.(1990). *The American Public School, 1742-1990* (2nd ed.). New York: Longman.
- Wells, A. S. (1993). *Time to Choose*. New York: Hill and Wang.
- Wells, A. S. & Serna, I. (1996). The Politics of Culture: Understanding Local Political Resistance to Detracking in Racially Mixed Schools. *Harvard Educational Review*.

ABSTRACT

A Study on the Diversification of Curriculum Implimentation in Korean Secondary Schools

Gim, Chae-Chun
(KICE)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the polices that would keep the quality of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through the change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rather than through an institutional reform. In the study, I tried to do four different works. First, after analyzing the socio-historical character of secondary education, I demanded on redefining the nature of secondary education in Korea. Second, I tried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on which we are able to locate a variety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policies. Third, I tried to concretize the proposed policies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by providing an example of diversified curriculum implementation. Fourth, I examined about the usage of the proposed policies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and the probability of revising national curriculum and/or modifying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As a conclusion, I suggested that the proposed curriculum implementation policies should be field-tested before the wide application to secondary school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quality education in Korea.